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1. 1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독일, 시리아 파병 자국군 임무기간 연장 결정

- 10.27 현지언론은 독일 연방의회가 터키-쿠르드 간 분쟁으로 ISIS의 세력 확장이 우려되어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병한 자국군의 주둔을 '20.3까지 연장하는 안전을 가결했다고 보도

* 독일 외무장관은 '시리아와 이라크는 ISIS의 새로운 테러방식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, ISIS의 세력 확장은 유럽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'라고 지적

○ 프랑스, 이슬람 증오범죄 추정 총격 발생

- 10.28 프랑스 당국은 남서부 바욘의 한 모스크에서 극우성향으로 알려진 80대 남성이 모스크 정문에서 방화 시도 후 실패하자 인근에 있던 노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, 이슬람교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

○ 터키, ISIS 조직원 3명 테러모의 혐의로 체포

- 10.29 현지언론은 ISIS 수괴 「알 바그다디」 사망 이후 국내 치안 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터키의 '공화국 출범 96주년'에 맞춰 테러를 계획한 ISIS 조직원 3명을 이스탄불에서 검거하였다고 보도

중 동

○ 시리아 쿠르드족, 안전지대 밖 철수 공식 선언

- 10.27 AP통신은 시리아 쿠르드 인민수비대(YPG)가 주축이 된 반군연합 시리아민주군(SDF)이 27일 시리아 국경지대에 설정된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하기로 했다고 보도

미 주

○ 美,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에 美軍 배치

- 10.26 WP는 미국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했으나, 동부 유전지대(데이르 알조르 지역)가 ISIS나 다른 위협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여명의 미군을 유전지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

* 러시아는 미국이 시리아 유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국제적 강도질이라며 비난

○ 美, ISIS 수괴 「알 바그다디」 사망 공식 발표

- 10.27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“미국은 세계 최고 테러 조직의 수괴에 대한 정의(正義)를 구현했다”며 「알 바그다디」가 미군의 제거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

○ 美, ISIS 지도부 추적·제거 군사작전 지속 천명

- 10.28 美 국방부는 「알 바그다디」 제거작전 中 ISIS 대원 2명을 생포하고 ISIS의 중요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와 여러 문서를 입수했으며, 同조직의 지도부에 대한 추적 및 제거를 위해 더 많은 군사작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인천공항, 세계최초 「AI 기반 X-Ray 자동판독시스템」 도입

- 10.31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세계최초로 보안검색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, 총기류 등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으로 보안검색 역량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표

○ 뉴질랜드, 크라이스트처치 총기난사 미화 게임 금지처분

- 10.31 뉴질랜드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치 총기난사 사건을 재현한 게임에 대해 “백인우월주의 테러리스트의 입장이 되어 백인이나 이성애자 남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공격토록 한다”고 지적, 同게임의 판매·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

美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테러

- '18. 10. 27 10:00경 美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스쿼럴힐 소재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테러가 발생,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(경찰관 4명 포함)
 - 범인은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 예배를 노렸으며, 유대교 예배 중 갑자기 난입하여 “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”고 외치며 총기 난사 후 출동한 무장경찰과 총격전 끝에 총상을 입고 투항
 - * 범인은 체포당시 AR-15소총 1정과 권총 3정 소지
 - 당시 회당에는 75명의 신도가 갓 태어난 유아들의 이름을 짓는 명명식 예배가 진행중이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
- 범인은 백인남성 「로버트 바우어스」(46)로 극우사이트 ‘갭닷컴(Gab.com)’에 反유대주의·백인우월주의 성향의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, 특히 범행 2시간 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
 - 연방검찰은 「바우어스」에 대해 증오범죄·총기살인·살인미수·종교 자유침해 등 4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

<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>

- (개요) 1971. 7. 28 ~ 2019. 10. 26,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의 수괴
- (생애)
 - '71년 이라크 사마라 출생, 후세인 정권시절 이슬람 신앙을 설교하며 반정부활동 전개
 - '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본격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'05년에 미군에 체포되어 '09년까지 이라크 부카기지 수용소에 수감
 - '10년 ISIS 「오마르 알 바그다디」 사망 이후 후계자가 되었으며 시리아로 근거지 이동
 - '14. 6. 29 이라크 모술에서 스스로 ISIS의 칼리프를 선포하며 세력 확장
 - '17년부터 서방 연합군의 ISIS 격퇴전으로 세력 와해
 - '19. 3월 시리아민주군(SDF)에 의해 최후 근거지 바구즈 상실
 - '19. 10. 26 시리아 이дли프주의 한 마을에서 미군의 제거작전중 자폭